

미래성장 동력 예산 대거 확보

익산 국가예산 '9천억원' 돌파, 혁신성장 가속화

익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9천억원을 돌파했다. 미래 신산업이 대거 포함된 내년도 국가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익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익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9천689억원으로 올해 8천424억원보다 무려 1천265억원, 12.8%가 증가했다. 이는 익산시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인 5.3%는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 슈퍼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증가율 8.9%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셈이다.

지난 2019년까지 6천억원 규모이던 익산시 국가예산은 올해 8천억원을 넘어선 이후 한 해 만에 9천억원을 돌파했으며 이제는 1조원대를 바라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제약되고, 20대 대선정국에 따른 여야 대립, 중앙정부 직접수행사업 확대와 신규사업 억제기조 등 지자체에 지원되는 재원 총량이 제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일군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익산시의 미래성장·발전을 이끌 신규 사업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47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첫 시작을 이룬 사업비는 354억원이 확보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신산업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이다. ▲농생명, 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 촉진 지원사업(59억원, 총사업비

20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캐피탈 조성(34.2억원, 총사업비 263억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1억원, 총사업비 300억원) 등의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R&D 기반이 갖춰진 융합바이오 생산기지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4.2억원, 총사업비 60억원) ▲익산 공공하수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설치공사(8.5억원, 총사업비 117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1.2억원, 총사업비 2.4억원)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선다.

또한 ▲XR 소재 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20억원, 총사업비 7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18.7억원, 총사업비 4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2억원, 총사업비 485억원) 등 지역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예산이 고르게 확보됐다.

이밖에도 ▲오산 신지·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26.8억원, 총사업비 1,888억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1.89억원, 총사업비 100억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사업(3억원, 총사업비 80억원) ▲익산(장정마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2억원, 총사업비 65억원)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다수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앞으로 총 5,648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돼 익산시 대도약을 이끌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이 국가예산 확보로 속도감과 추진력 있게 진행된다.

점도 큰 성과다.

안전·환경 분야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263억원, 총사업비 1,680억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76.5억원, 총사업비 1,015억원) 등 1천200여원을 확보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500만 명품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로 ▲고도보존 육성사업(210.89억원, 총사업비 3,418.92억원),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70.99억원, 총사업비 215.99억원) 등 4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역사문화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SOC 분야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318억원, 총사업비 3,175.99억원), ▲홀로그래픽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사업(20억원, 총사업비 300억원) 등 2천171억원을 확보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축산·식품 분야로 ▲그린바이오 벤처캐피탈 조성사업(34.2억원, 총사업비 263.9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21.89억원, 총사업비 5,535.99억원) 등 1천961.99억원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보건 분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198.89억원, 총사업비 380.99억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20.59억원, 총사업비 163.99억원) 등 3천280.9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각지대 없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도시를 구현하게 되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는 산림청 주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대상지로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이 선정돼 오는 2022년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 재탄생

군산 방치된 폐철도, 철길숲 조성사업 선정

군산시는 산림청 주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대상지로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이 선정돼 오는 2022년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 철길숲은 사정산거리에서 구)군산화물역 2.6km구간의 폐철도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원 등 총 200여원이 투입된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역별 테마숲, 철길 가로숲, 라가든, 패밀리카공원, 스카이포레스트존, 상징조형물 등 지역주민과 상권을 고려한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김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간 긴밀하고 활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선정됐으며, 더불어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 철도관리공단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

제안 공모사업에 응모한 상태로 예산 절감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철길숲과 2022년 조성될 중앙광장 경관숲, 2019년 조성된 금암동 도시재생숲을 녹지축으로 연결해 지역 문화 자원과 철길마을 연계를 통한 관광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녹색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숲길을 통해 어느곳이든 연결된 걷고 싶은 도시 군산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사업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복지정보 한 통에 해결 '익산시 복지콜' 운영

익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복지정보를 원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정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복지정보 전화 상담 '익산시 복지콜'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표전화는 익산시 민원콜센터 분야별 세부 접수현황 중 다수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 ▲긴급복지 ▲나눔공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매화장 ▲이동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등 17개 분야로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분야별 17개의 시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복지국 관련 부서 대표전화를 선정·홍보해 운영 홍보할 방침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초·중·고교 주변 전신주 금연스티커 부착

군산시보건소는 청소년 금연 인식 제고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 노후 금연표지판을 교체 및 추가 설치했다.

군산시 보건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지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의 흡연율은 2019년 22.5%, 2020년 17.3%로 201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다.

이에 보건소는 초·고등학교 주변 155개의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노후된 금연 표지판 5개를 수리, 5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전신주 등 시설물을 활용한 금연홍보로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시동'

익산시, 한지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 거쳐 내년 3월 착공 예정

익산시는 부송4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전북지방환경청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한 최종 확정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송동 지역 신재생지원센터 주변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약 29만

m 부지를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한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부송4지구는 협의기간이 길어진 만큼 쾌적한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심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반영 녹지 및 공원을 추가로 확보 주거 단지 옆 공기정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힐링 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도로선형 및 폭을 확정하여 원활한 교통의

흐름, 주차장 추가확보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선제적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동주택용지의 집단환지를 신청받는다.

집단환지 신청 예정자에 한해 지난달 30일 부송도서관에서 설명회를 거쳐 집단환지 신청이후 개별 환지 인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이상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의 미래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개최

익산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의 대표 2030 정책기획단이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제5기 2030 정책기획단은 지난 10일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 정현을 시장, 정책기획단원, 전문가 심사위원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수정 보완해왔던 2030 세대의 반짝이는 아이덴티티와 신선한 사업내용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으며, 직접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을 중심으로 발표에 이르기까지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하는 등 발표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심사는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맡아 발표 태도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 지난 5월 출범한 '제5기 2030 정책기획단'은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회의, 전체회의, 지원부서 자문·컨설팅 회의 등 이어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업·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익산형 3040 농촌철약, 교도소 탈출게임, 익산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방안, 세대통합형 점드라 놀이터 조성사업,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등 10여개의 신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